

CONTENTS

- 1. 국내펀드 동향
- 2. 해외펀드 동향
- 3. 현금유출입 동향
- 4. 변액보험

<국내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1분기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강세

<해외펀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주식펀드 강세

<현금유입>

국내외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서 설정액 감소

<변액보험>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플러스 성과 기록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12년 1분기 국내펀드 동향

국내주식형 펀드, 1분기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강세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형펀드 9.80%
1분기 성과 기록

1분기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은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 가닥을 잡고 미국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4월 2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2년 1분기 동안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9.80% 상승했다. 대형주 위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대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들의 성과가 더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 및 펀드 성과를 끌어내려던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초 이후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고, 미국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연초 이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도 이어졌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안착한 뒤 3월 들어서는 중국 경기 우려 등으로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200인덱스 펀드
성과 가장 좋아
-12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IT, 자동차 대형주들이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양호했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인덱스 펀드는 1분기 11.65%로 소유형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일반주식펀드는 8.69%, 배당주식펀드는 7.91%였다. 하지만 중소형주식펀드는 중소형주의 부진으로 4.60% 상승에 그쳤다.

채권에 일부 투자하는 일반주식혼합펀드의 경우 4.81%, 일반채권혼합펀드는 3.14% 성과를 냈다. 절대수익추구형인 채권알파펀드와 공모주하이일드펀드도 각각 1.05%, 1.07% 수익률이 올랐다. 시장중립펀드는 0.43% 상승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4분기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1,337	389,175	-0.98	8.69	10.48	-9.03
	중소형 주식	79	11,659	-1.98	4.60	5.22	-5.92
	배당 주식	104	16,451	-0.89	7.91	11.66	-7.57
	KOSPI200인덱스	197	101,938	-0.14	11.65	16.99	-3.63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18	20,852	-0.28	4.81	6.54	-3.48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343	39,053	-0.09	3.14	4.61	0.31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5	6,155	0.13	1.05	1.87	2.93
	시장중립	39	1,808	-0.18	0.43	0.46	-0.78
	공모주하이일드	20	1,357	0.03	1.07	2.42	2.91
KOSPI				-0.80	10.31	13.81	-4.40
KOSDAQ				-4.19	3.87	15.55	-1.12

주1) 설정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주식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657개 국내주식형 펀드 중 3개 펀드를 제외한 전체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를 웃돈 펀드는 237개였다.

증시 상승으로 인해 코스피200지수의 두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성과 상위를 차지했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 [주식-파생재간접]종류A'이 1분기 24.94% 수익률로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ETF인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상장지수 [주식-파생]'와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 [주식-파생재간접]',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

점)'도 23% 내외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작년 말 설정된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 A' 펀드는 24.66%로 수익률 2위에 올랐다. 이 펀드는 신규펀드로서 포트폴리오 신규 구성에 따른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1분기 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증권, 조선, IT 업종 관련 ETF들도 수익률이 높았다.

반면 코스닥에 투자하는 ETF 등 중소형주 펀드들은 수익률이 부진했다.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와 'KStar코스닥엘리트30 상장지수(주식)',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 (주식)'은 국내주식형펀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우리현대차그룹과함께자 1[주식]A1'펀드는 현대차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의 다른 편입종목이 하락하면서 1.89% 상승에 그쳐 하위권에 올랐다. 20여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코리아소수정예 1[주식]_(C 1)' 도 시장보다 부진했던 보험업,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아 2.82% 수익률에 그쳤다..

국내 주식형 펀드 3개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종류A	100	기타인덱스	-1.17	24.94	-21.53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 A	136	중소형주식	1.56	24.66	
삼성KODEX조선주 상장지수[주식]	143	기타인덱스	-10.16	23.73	-26.04
삼성KODEX증권주 상장지수[주식]	267	기타인덱스	-2.66	23.56	-21.48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271	기타인덱스	-1.01	23.30	-15.41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266	기타인덱스	-0.97	22.98	-16.93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8,448	기타인덱스	-0.95	22.61	-17.40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 [주식-파생]Class A	3,313	기타인덱스	-0.67	17.53	-10.08
하나UBS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종류A	365	기타인덱스	-0.62	17.52	-9.38
미래에셋TIGER IT상장지수[주식]	164	기타인덱스	0.91	16.48	

국내 주식형 펀드 3개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	138	기타인덱스	-6.08	-1.31	-12.65
KStar코스닥엘리트30 상장지수(주식)	193	기타인덱스	-5.49	-1.18	-13.53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 (주식)	175	기타인덱스	-4.95	-0.32	-10.75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상장지수(주식)	558	기타인덱스	-4.04	1.58	-9.80
우리현대차그룹과함께자 1[주식]A1	156	테마주식	-1.66	1.89	
하이중소형주플러스자 1[주식]C 1	241	중소형주식	-2.37	2.40	-17.59
삼성코리아소수정예 1[주식]_(C 1)	359	일반주식	0.95	2.82	-4.15
삼성KODEX자동차 상장지수[주식]	721	기타인덱스	2.05	2.87	3.80
이스트스프링코리아리더스[주식]	1,638	일반주식	-0.19	3.23	-2.93
이스트스프링업종일등[주식]클래스A	159	일반주식	-0.17	3.31	-2.71

주1) 3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채권형 펀드 성과

국내채권형 0.57%

성과 기록

국내채권형펀드는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져 1분기 0.57%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시장은 연초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

도 했으나,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유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뒤 이어 그리스 의회가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키고 유로존 국가들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 합의 등의 소식도 채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렸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채권펀드 중에서는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강세였고,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하이일드채권펀드의 성과가 선방했다.

1분기 하이일드채권펀드는 1.16% 수익률을 기록했고, 초단기채권펀드는 0.90%를 나타냈다. 일반채권펀드는 0.81%였다. 이는 연환산 수익률로는 약 2.5%로 저조한 성과다. 우량채권펀드와 일반중기채권펀드는 각각 0.56%, 0.45% 수익률로 이보다 더 부진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4분기	6개월	1년
채권형	일반채권	105	12,296	0.18	0.81	2.11	4.24
	초단기채권	9	2,790	0.28	0.90	1.76	3.51
	일반중기채권	69	33,615	-0.03	0.45	1.89	4.72
	우량채권	36	7,274	0.11	0.56	1.70	3.91
	하이일드 채권	19	1,039	0.37	1.16	2.45	5.18
KIS채권지수(1년 종합)				0.29	0.94	1.89	3.83
MMF	MMF	148	595,345	0.28	0.83	1.66	3.31

주1) 설정액 50억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채권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채권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68개 채권형 펀드 중 채권지수인 KIS 1년 상승률을 초과한 펀드는 12개에 그쳤다.

초단기채권과 하이일드채권들이 수익률 상위에 오른 반면, 중기채권 펀드들은 성과가 안 좋았다.

'흥국멀티플레이 4[채권]'이 1분기 1.33%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는 초단기채권으로, 저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평균듀레이션은 0.78년이다.

이 밖에 '동양에이스플러스 1(채권)Class C'펀드가 1.32% 수익률을 기록했고,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D 2- 1(채권)Class C- 1' 펀드가 1.27%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해 중장기물 채권 펀드들은 부진했다.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은 1분기 -0.28% 수익률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역시 중기채권 펀드인 'KB장기주택마련 1(채권)'과 'KB스타막강국공채[채권]C'도 각각 0.00%, 0.13% 수익률로 부진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 3개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흥국멀티플레이 4[채권]	136	초단기채권	0.46	1.33	4.59
동양에이스플러스 1(채권)Class C	113	일반채권	0.26	1.32	4.80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D 2- 1(채권)Class C- 1	161	하이일드채권	0.42	1.27	5.28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D 1- 1(채권)Class C- 1	246	하이일드채권	0.40	1.25	5.24
동양High Plus 1(채권)A	815	일반채권	0.25	1.21	5.07
KB KStar우량회사채상장지수[채권]	519	일반채권	0.30	1.13	
흥국무지개[채권]	254	일반채권	0.21	1.07	4.79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 1(채권)(C)	630	일반채권	0.30	1.06	4.23
동양장기회사채 1(채권)C- 1	115	일반채권	0.28	1.04	4.54
한화장기회사채형 1[채권]종류C	323	일반채권	0.16	0.93	4.64

국내 채권형펀드 3개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	171	중기채권	-0.59	-0.28	
KB장기주택마련 1(채권)	124	중기채권	-0.19	0.00	3.99
KB스타막강국공채 [채권]C	100	중기채권	-0.20	0.13	3.78
삼성KODEX 국고채권 상장지수[채권]	795	중기채권	-0.06	0.20	4.14
미래에셋중장기자[채권]종류C-I	1,297	중기채권	-0.14	0.23	
미래에셋TIGER국채 3상장지수(채권)	690	중기채권	-0.04	0.23	4.28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 [채권]	1,485	중기채권	-0.02	0.24	4.34
한국투자KINDEX 국고채 상장지수(채권)	555	중기채권	-0.01	0.26	4.31
한국투자퇴직연금 자 1(국공채)	461	우량채권	-0.17	0.27	5.24
삼성클래식연금 전환 1[채권]	115	중기채권	0.06	0.33	3.12

주1) 3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식 현황

1분기 국내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완화와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며 2000선에 안착했다.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특별한 수급주체 없이 2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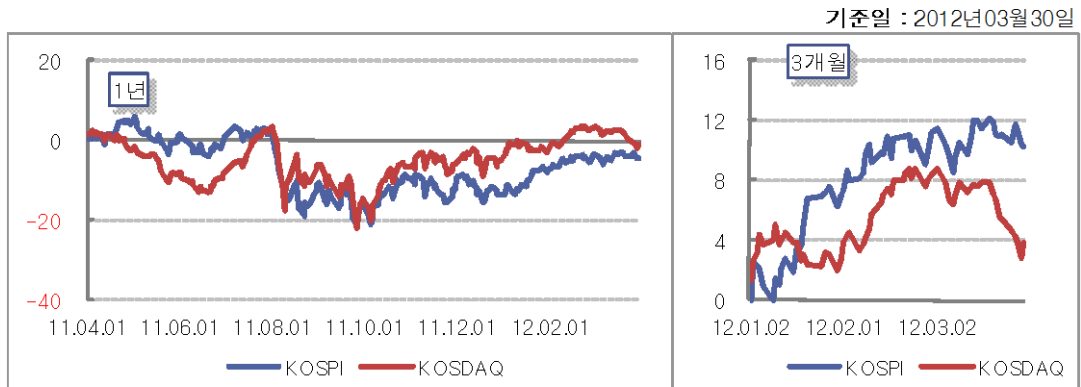
1분기 코스피지수는 10.31% 상승했다. 대형주가 12.15%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중형주는 0.97%로 부진했다. 소형주지수는 9.35% 올랐다. 증권, 전기전자,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였으며, 의료정밀, 전기가스 업종은 마이너스였다.

1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P(S&P)가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인식되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닷새를 제외하고는 줄곧 주식을 사들이며 증시를 부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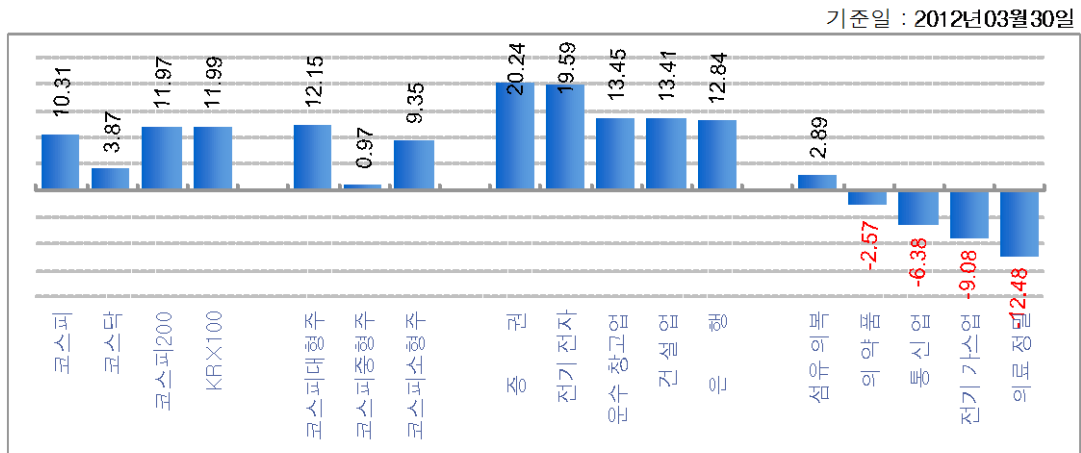
연초에 이어 강하게 나타났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세가 2월에도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2월에도 상승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한 것과 중국 등 주요국의 추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코스피 단기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하지만 3월에는 그리스 구제금융안 통과로 유럽 재정위기가 일단락되고 미국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기하강 및 중국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국내 증시는 2000선 부근에서 오르내리며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1/4분기간 수익률



자료 : KOSCOM

채권 시장

1분기 채권시장 약세

1분기 국고채 1년물은 0.1%포인트 오른 3.5%, 3년물은 0.3%포인트 오른 3.6%를 기록하며 약세를 기록했다.

1월 국내 채권시장은 유럽 위기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으로 보험세를 나타냈다. 정부 물가안정 의지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로 금리 상승을 이끌었으나,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 완화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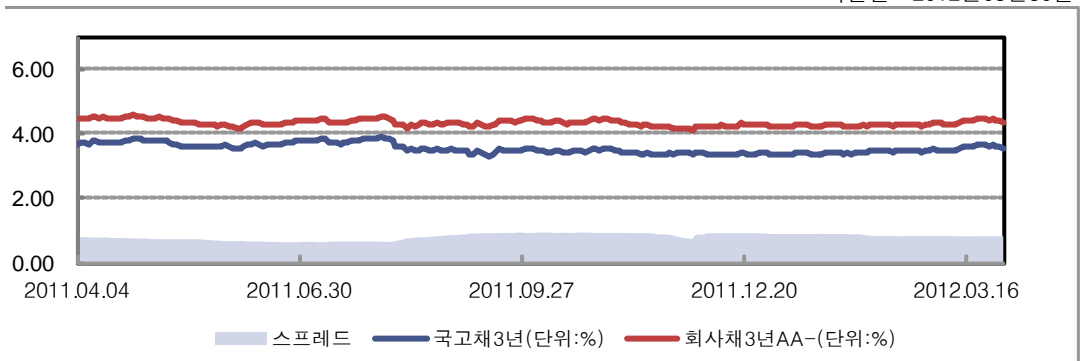
2월 국내 채권시장은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이슈로 등락을 반복했다. 월초 국내외 주가 상승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한 채권시장은 그리스의 긴축안 합의가 불확실해지면서 강세로 전환됐다. 이후 그리스 의회가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축됐던 투자심리는 무디스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소식에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면서 한달간 채권 금리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3월에도 경기 개선 기대가 이어지며 약세를 지속했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 판단을 상향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해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다운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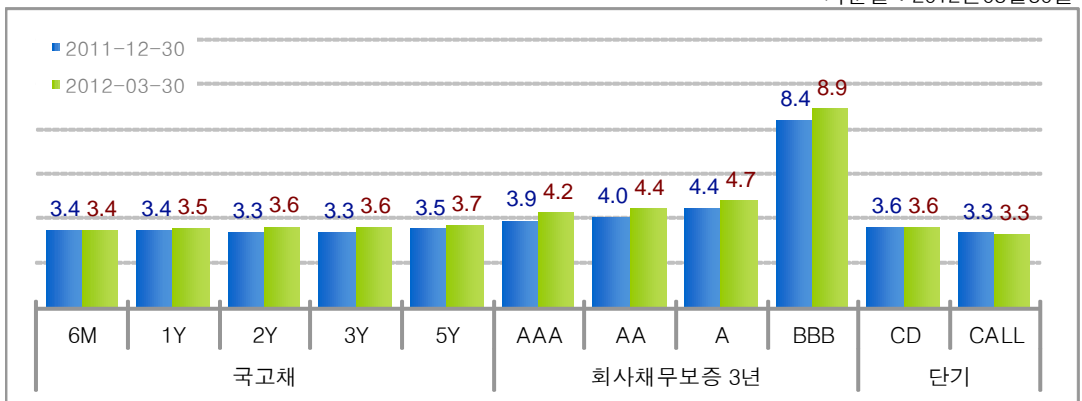
국내 주요 채권금리 추이(1년)

기준일 : 2012년03월30일



1/4분기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12년03월30일



자료:본드웹

2012년 1분기 해외펀드 동향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주식펀드 강세

해외주식펀드
강세지속

연초대비 순자산액
9,969억원 증가

러시아주식펀드
해외주식펀드 중
성과상위

일본주식펀드 선진국
펀드 중 성과 상위

유럽존 위기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글로벌증시가 상승했다. 이에 해외주식형펀드는 2012년 1분기 동안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연초 이후 순자산은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국제 유동성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 주식펀드가 강세를 보였다. 이란 석유 수출 제재에 따른 반사효과로 유가가 급등하며 자원부국 러시아주식펀드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 유럽신흥국주식펀드가 뒤를 이었다.

일본주식펀드는 선진국펀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관련 기업의 실적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 04월 02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4분기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1,861	234,848	-4.70	10.22	12.43	-13.84
	글로벌주식	85	3,615	0.42	11.89	15.81	-2.75
	글로벌신흥국주식	285	51,267	-4.94	11.79	12.76	-13.48
	유럽주식	63	1,657	-0.89	9.38	13.86	-5.26
	북미주식	55	2,395	2.25	13.80	23.18	3.07
	아시아태평양주식	39	1,390	-1.39	11.03	11.09	-7.24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85	13,651	-0.66	11.31	12.70	-4.92
	동남아주식	71	2,781	2.03	12.33	17.35	4.52
	아시아신흥국주식	90	13,498	-3.99	12.30	8.69	-13.85
	유럽신흥국주식	60	3,287	-2.80	17.28	13.98	-20.63
	남미신흥국주식	69	5,218	-3.21	14.24	20.08	-6.72
	프론티어마켓주식	27	201	2.85	11.96	11.57	-0.11
	일본주식	72	2,086	3.03	15.99	11.10	0.74
	중국주식	430	107,152	-5.92	8.03	12.72	-16.23
	인도주식	80	5,389	-5.83	14.82	-3.82	-18.49
	브라질주식	48	2,838	-5.40	14.51	17.51	-8.00
	러시아주식	45	5,308	-3.20	20.30	18.95	-21.59
	에너지섹터	62	2,212	-6.58	2.61	7.23	-18.38
	기초소재섹터	48	6,064	-9.88	4.99	5.27	-22.91
	소비재섹터	14	357	1.90	17.37	22.40	15.80
	헬스케어섹터	7	99	1.80	8.17	16.83	14.15
	금융섹터	30	800	1.75	16.57	18.23	-8.58
	멀티섹터	54	3,209	1.19	10.52	17.96	5.85
해외주식혼합형		86	23,192	2.77	12.68	10.72	-4.60
해외채권혼합형		116	2,804	-1.14	4.62	5.84	-0.89
해외채권형		159	36,596	0.07	4.89	7.89	5.24
해외부동산형		53	10,146	0.33	9.91	13.32	7.12
커머리티형		97	5,186	-4.94	2.54	-0.34	-11.0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

주2)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채권형은 5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자료: 제로인 (www.funddoctor.co.kr)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4월 2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2012년 1분기 동안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0.22%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펀드 1/4분기
10.22% 상승**

유럽 중앙은행(ECB)이 두 번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LTRO)을 통해 약 1조 유로의 자금을 유럽금융기관에 유입시킴으로써 신용경색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이 호재였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발행 성공과 미국 경제 지표 호조, 신흥국들의 경기회복 노력이 해외주식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주식펀드
20.30%로 가장 우수**

유럽연합(EU)의 이란 석유금수조치를 계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러시아 증시로 투자자금의 유입이 이뤄졌다. 그 결과 러시아주식펀드는 20.30%수익률로 신흥국주식펀드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러시아주식펀드 호조에 힘입어 유럽신흥국주식펀드 또한 17.28%의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유럽신흥국주식펀드
17.28% 상승**

**일본주식펀드 15.99%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과**

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완화되고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 상승이 일본 주식시장을 견인했다. 일본주식펀드는 15.9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진국주식펀드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북미주식펀드 13.80%

북미주식펀드는 13.8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소매판매, 실업수당 청구건수, 지역별 제조업지수, 자동차 판매 등 경기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로존 구제기금 확충소식과 버냉키 의장의 통화완화 정책 발언이 북미주식펀드 성과에 주요했다.

인도주식펀드 14.82%

인도주식펀드는 14.82%의 수익률로 신흥국주식펀드중 두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출 및 산업생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인도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브라질주식펀드
14.51%**

브라질주식펀드는 14.51% 상승한 안정적 성과를 보였다. 원자재 주 소비국인 미국의 경제가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고 석탄과 구리 등 브라질이 생산하는 주요 광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브라질 증시도 상승했다.

중국주식펀드 8.03%

중국주식펀드는 8.0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브릭스 펀드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7.5%로 하향 조정하였고, 부동산시장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화된 점이 중국주식펀드 성과 상승을 제한했다.

**소비재섹터펀드
17.37%**

섹터별로 살펴보면 소비재섹터펀드는 중국과 인도의 소비재섹터 투자증가로 17.37% 상승하며 섹터펀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금융섹터펀드 16.57%

금융섹터펀드는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미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양호한 결과 등 신용경색 우려 완화로 16.57%의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채권형펀드 4.89%

해외주식혼합형 펀드는 글로벌 증시 호조와 맞물려 12.68% 올랐고, 해외채권혼합형 펀드는 4.62%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4.89%를 기록했다. 글로벌하이일채권드펀드와 신흥국채권펀드가 각각 6.43%, 6.36% 수익률을 기록했고, 북미채권펀드는 3.48% 수익률로 가장 저조했다.

개별 해외 펀드 성과

**해외주식펀드 대부분
플러스 성과기록**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3개월 이상인 281개 해외주식펀드(모든 클래스 포함)중 278개의 펀드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펀드 성과 상위에는 금융섹터와 러시아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강세였다.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1[주식](A)’ 1분기 22.50%로 1위

개별펀드별로 살펴보면 금융섹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1[주식](A)’ 펀드가 22.50%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는데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 미국 주요 금융주들의 주가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JP모간러시아자(주식)A’ 펀드, ‘우리러시아익스플로러 1[주식]Class A 1’ 펀드가 각각 22.48%, 20.9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자리했다. 동유럽국가에 투자하는 ‘우리Eastern Europe 1[주식]Class A 1’도 러시아 강세에 힘입어 20.31%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A) 3.58% 하락하며 하위권

소비재섹터 강세와 맞물려 ‘미래에셋글로벌레이트컨슈머자 1[주식]종류A’ 펀드가 18.40%의 수익률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펀드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수익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펀드는 1년 수익률이 18.3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나타냈다. 이 펀드가 투자한 애플, 버버리 등 명품 관련주가 경기침체 우려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점이 주요했다.

반면 중국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A)’펀드가 3.58% 하락하며 성과 하위에 기록됐다. 3월 들어 금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펀드와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H)(A)’ 펀드도 각각 0.72%, 0.07% 하락하며 월간 성과 하위권에 자리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 3개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 04월 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1[주식](A)	205	금융섹터	6.72	22.50	-11.53
JP모간러시아자(주식)A	2,156	러시아주식	-3.10	22.48	-23.71
우리러시아익스플로러 1[주식]Class A 1	639	러시아주식	-0.75	20.95	-16.26
우리Eastern Europe 1[주식]Class A 1	785	유럽신홍국주식	-0.77	20.31	-17.85
미래에셋글로벌레이트컨슈머자 1[주식]종류A	166	글로벌주식	4.08	18.40	18.36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자 1[주식]종류A	177	인도주식	-8.12	18.37	-24.90
신한BNPP봉즈러시아 자(H)[주식](종류A 1)	341	러시아주식	-3.12	18.24	-19.03
신한BNPP더드림러시아 자 1[주식](종류A)	350	러시아주식	-3.45	18.10	-20.19
KB인디아 자(주식)A	432	인도주식	-6.60	17.83	-21.46
프랭클린템플턴이스턴유럽자[주식-재간접]Class A	205	유럽신홍국주식	-0.31	17.43	-23.42

해외 주식형 펀드 3개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4분기	1년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A)	1,015	중국주식	-6.29	-3.58	-25.64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132	기초소재섹터	-11.62	-0.72	-8.13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H)(A)	104	기초소재섹터	-13.22	-0.07	-17.21
삼성CHINA20본토 자 2[주식](A)	144	중국주식	-4.18	0.01	-15.25
우리글로벌천연자원 1[주식]Class A 1	570	에너지섹터	-7.93	0.31	-16.59
KB중국본토A주자(주식)A	472	중국주식	-3.60	0.79	-17.08
삼성CHINA본토포커스자 1[주식]_A	704	중국주식	-5.39	1.21	-16.99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H)(A)	463	에너지섹터	-6.31	1.97	-14.32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UH)[주식]클래스A	1,693	중국주식	-1.44	2.18	-9.82
삼성CHINA20본토 자 1[주식](A)	1,236	중국주식	-5.06	2.22	-16.22

주1) 3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단준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012년 1분기 펀드자금 동향

1분기 국내외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서 지속적 설정액 감소

공모펀드 자금동향

2012년 1분기 공모펀드 전체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로의 자금유입에 힘입어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외 증시가 2월까지 동반 급등을 보인후 3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1분기 동안 주식형과 혼합형에서 지속적인 설정액의 감소가 있었다.

1분기 공모펀드 설정액
1조 6,997억원 증가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4월 초 현재 179조 1,148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동안 설정액이 1조 5,997억원 증가했고 현금흐름도 2조 4,420억원 순유입 되었다.

주식형, 혼합형
지속적인 설정액 감소

국내와 해외 모두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서는 현금이 유출됐다. 1분기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펀드환매를 통한 이익 실현 욕구가 커져 석달 연속 현금이 빠져나갔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3월 들어 둔화되면서 국내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의 자금유출 규모도 줄어들었다. 해외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에서는 2월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유출이 3월달에도 이어졌다.

공모펀드 유형별 1/4분기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4,432	904,587	-67,255	813,097	47.86	-60,401
혼합형	1,287	124,885	-4,333	119,745	7.05	-3,735
채권형	462	102,673	5,950	105,216	6.19	5,773
MMF	169	591,494	77,435	600,840	35.37	78,647
기타	826	67,509	4,199	60,037	3.53	4,136
총계	7,176	1,791,148	15,997	1,698,935	100.00	24,420
국내주식형	2,356	597,748	-49,837	578,244	34.04	-47,230
국내혼합형	1,054	92,792	-2,288	93,713	5.52	-2,255
국내채권형	290	66,910	3,820	68,602	4.04	3,866
국내MMF	169	591,494	77,435	600,840	35.37	78,647
국내기타	584	42,875	4,512	39,195	2.31	4,171
국내소계	4,453	1,391,818	33,643	1,380,595	81.26	37,199
해외주식형	2,076	306,839	-17,418	234,852	13.82	-13,171
해외혼합형	233	32,094	-2,045	26,031	1.53	-1,480
해외채권형	172	35,763	2,129	36,615	2.16	1,907
해외기타	242	24,634	-313	20,842	1.23	-35
해외소계	2,723	399,330	-17,647	318,340	18.74	-12,779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4)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5)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주식형 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
4조 9,837억원 감소

모든 유형에서 지속적
자금 유출

2012년도 1분기 동안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ETF제외)은 4조 9,837억원 감소한 59조 7,748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흐름에서는 4조 7,230억원이 유출됐다. 국내주식펀드의 모든 소유형에서 설정액 감소와 현금유출이 있었다.

국내증시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차익실현 매도세가 1분기 동안 계속되었다. K200인덱스펀드의 3월 설정액 순증가를 제외하면 모든 유형에서 석달 동안 지속적으로 설정액이 감소했다.

일반주식펀드가 3조 3,041억원으로 설정액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설정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배당주식펀드에서 2,498억원 이 감소한 것이 가장 높았다. 배당주투자자 유입된 자금이 이탈되면서 많은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형주식펀드 설정액은 1분기동안 1,143억원 감소했으며 테마주식펀드에서는 7,067억원이 유출됐다. K200인덱스펀드와 기타인덱스펀드에서도 각각 3,775억원과 2,312억원의 설정액이 줄었다.

1분기 동안 설정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펀드는 'JP모간코리아트러스트자(주식)C2'펀드로 설정액이 1,393억원 증가했다. 수익률은 동기간 11.76%를 기록해 일반주식펀드 유형평균 수익률 8.69%를 3.07%포인트 초과했다. 이는 동일유형 상위 8%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다.

그 뒤로 'KB한국대표그룹주자(주식)클래스C2'가 1,225억 설정액이 증가했다. 수익률은 9.23%로 동일유형 상위 4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4분기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1,480	414,699	-33,041	396,492	68.57	-30,914
중소형주식	83	12,206	-1,143	11,667	2.02	-991
배당주식	117	17,361	-2,498	16,515	2.86	-2,362
테마주식	346	80,915	-7,067	81,082	14.02	-7,011
K200인덱스	209	53,360	-3,775	53,974	9.33	-3,829
기타인덱스	121	19,206	-2,312	18,515	3.20	-2,124
총 계	2,356	597,748	-49,837	578,244	100.00	-47,230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주식형 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1조 7,418억원 감소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분기 동안 1조 7,418억원이 감소한 30조 6,84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설정액의 약 5.4%정도가 감소한 수치이다.

1분기 내내 해외주식형 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정액이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권역별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 감소를 초래했다. 설정액 감소 추이는 1월달 3,885억원, 2월달 7,151억원, 3월달 6,382억원이었다.

중국주식펀드와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 대거 유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글로벌주식펀드와 기타주식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설정액이 감소했다. 중국주식펀드에서 5,896억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 설정액 감소액이 5,41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4분기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개, 억원)

권역별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114	4,343	333	3,721	1.58%	451
유럽주식	75	2,311	-203	1,681	0.72%	-150
북미주식	67	2,173	-293	2,324	0.99%	-288
아시아태평양주식	39	1,665	-274	1,390	0.59%	-236
아-태주식(ex J)	97	15,823	-1,467	13,662	5.82%	-1,265
동남아주식	75	2,844	-414	2,786	1.19%	-386
글로벌신흥국주식	300	62,961	-5,418	51,178	21.79%	-4,366
아시아신흥국주식	92	17,764	-536	13,498	5.75%	-326
유럽신흥국주식	65	5,478	-379	3,289	1.40%	-217
남미신흥국주식	74	5,887	-566	5,094	2.17%	-491
프론티어마켓주식	34	356	-57	207	0.09%	-27
기타신흥국주식	3	27	-4	13	0.01%	-2
섹터별						
섹터별						
에너지섹터	76	3,368	-271	2,231	0.95%	-196
기초소재섹터	48	7,708	-111	6,064	2.58%	-94
소비재섹터	20	353	-112	369	0.16%	-116
헬스케어섹터	8	99	-29	101	0.04%	-29
금융섹터	30	1,287	-84	800	0.34%	-50
공공서비스섹터	2	54	-7	39	0.02%	-5
멀티섹터	60	3,533	-327	3,220	1.37%	-285
국가별						
국가별						
일본주식	85	4,275	-391	2,089	0.89%	-169
호주주식	6	9	-2	7	0.00%	-2
중국주식	470	142,950	-5,896	107,232	45.66%	-4,279
인도주식	85	7,437	-323	5,398	2.30%	-232
브라질주식	60	3,104	-294	2,824	1.20%	-274
러시아주식	50	10,667	-290	5,308	2.26%	-135
타이완주식	13	49	-3	40	0.02%	-3
말레이시아주식	5	10	-2	10	0.00%	-2
독일주식	2	2	-1	2		-1
기타국가주식	24	306	2	275	0.12%	5
총 계	2,079	306,841	-17,418	234,853	100%	-13,170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2012년 1분기 신규 설정 펀드

1분기 동안 총 186개의 공모펀드가 신규 설정됐고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4월 2일 현재 2조 89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6개 신규펀드설정

신규로 설정된 국내펀드가 142개, 해외펀드가 44개로 국내펀드수가 해외펀드수의 약 3배 정도였다. 설정액은 국내펀드가 1조 846억원, 해외펀드가 1조 45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3월 7일에 설정된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자1[채권]'펀드가 8,229억의 설정액으로 동기간에 가장 큰 규모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분기배당채권펀드와 유전펀드에 설정액 대거유입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자1[채권]'펀드는 분기별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점을 갖고 있어 많은 기관자금이 이 펀드로 유입됐다.

유전에 투자하는 '한국투자ANKOR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1[지분]'펀드가 2월 2일 설정된 이후 3,501억원의 설정액으로 그 뒤를 이었다.

1/4분기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 체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1,122	55	32	15	1,155	70	
주식혼합형	509	12	0	1	509	13	
채권혼합형	366	10	198	1	564	11	
채권형	1,237	10	8,998	23	10,235	33	
절대수익추구형	363	11			363	11	
부동산형			800	2	800	2	
MMF	169	2			169	2	
기타	7,080	42	10	1	7,090	43	
커머더티형			7	1	7	1	
운용사 전체	10,846	142	10,045	44	20,891	186	

-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함
-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 주3) 2011년 3분기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은 10월 4일 기준임
- 주4) CDSC관련 과거성과연결 클래스펀드는 제외.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1/4분기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자 1[채권]	미래에셋자산	20120307	8,229	해외채권형
한국투자ANKOR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 1[지분]	한국운용	20120202	3,501	기타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K- 1(채권) ClassAi	교보약사운용	20120210	1,000	채권형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 1[분배]	미래에셋자산	20120217	800	해외부동산형
신한BNPPHK-52[ELS-파생]	신한BNPP	20120213	507	기타
신한BNPPHK-53[ELS-파생]	신한BNPP	20120227	337	기타
메리츠추가지수연계23[ELS-파생]	메리츠운용	20120213	300	기타
신한BNPPHK-54[ELS-파생]	신한BNPP	20120305	276	기타
신한BNPPHK-57[ELS-파생]	신한BNPP	20120326	274	기타
NH-CA아이사랑적립 1[주식]Class Ci	NH-CA운용	20120213	251	주식형

-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12년 1분기 변액보험

1분기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플러스 성과기록

변액보험 국내펀드 성과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1분기 플러스 성과**

1분기 유로존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와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경제주체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가 급반등했다. 이에 힘입어 변액보험 펀드에서는 우량채권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1분기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다.

1월과 2월 변액보험펀드 전 유형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소폭 하락했다. 2월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급반등한 증시의 가격부담으로 3월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한 영향이다.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
1분기 8.66% 수익률**

2012년 4월 2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12년 1분기 변액보험 펀드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는 8.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은 8.6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31%, 3.87% 상승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대형주 위주로 운용하는 KOSPI200인덱스펀드가 1분기 수익률 10.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대형주의 수익률(12.15%)이 중형주(0.97%)와 소형주(9.35%)의 수익률을 상회했다.

**변액보험 국내채권형 펀드
우량채권펀드 -0.02**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 발표와 유로존의 위기 완화로 채권시장에서는 단기물 위주의 강세를 보였다.

변액보험 채권형펀드는 초단기채권펀드가 1분기 동안 0.64% 상승하며 가장 양호했다. 일반채권펀드는 0.48% 상승했으며 우량채권펀드는 0.02% 하락했다. MMF는 0.77%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50	71,740	-1.11	8.66	9.88	-10.75
	가치주식	15	14,579	-1.55	7.82	11.60	-6.24
	K200인덱스	23	20,475	-0.15	10.74	15.19	-4.12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26	227,258	-0.26	4.96	6.99	-2.03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115	154,088	-0.25	3.00	4.81	1.00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4	11,797	-0.17	1.50	2.49	0.79
KOSPI				-0.80	10.31	13.81	-4.40
KOSDAQ				-4.19	3.87	15.55	-1.12
채권형	일반채권	65	64,772	0.00	0.48	1.94	4.51
	초단기채권	9	1,814	0.19	0.64	1.45	2.97
	우량채권	3	2,824	-0.25	-0.02	1.52	4.46
MMF	MMF	4	2,183	0.25	0.77	1.56	3.10
KIS채권지수(1년 종합)				0.29	0.94	1.89	3.8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채권형 50억원)으로 운용된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 평균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투자펀드, 1분기 모든 유형 플러스 성과

변액보험 해외펀드 성과

1분기 해외주식형 9.77%

1분기 동안 변액보험 해외펀드는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일부 유형은 3월 들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지만 1월과 2월 상승폭이 커서 분기성과는 양호했다.

러시아주식펀드 17.02%최고

해외주식형펀드는 분기 수익률이 9.77%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주식펀드가 동기간 17.02%의 수익률로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일본주식펀드 15.27%

일본주식펀드가 15.27%로 그 뒤를 이었다. 버냉키 효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일본증시가 크게 오른 것이 펀드 성과를 끌어올렸다.

동남아주식펀드 13.67%

동남아주식펀드는 1분기 수익률 13.67%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 시장의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와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펀드 성과에 주효했다.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 완화로 유럽주식과 유럽신흥국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분기수익률이 각각 13.60%와 13.66%를 기록했다.

유가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에너지섹터 펀드는 1분기 수익률이 2.78%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혼합형은 5.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채권혼합형은 2.52%의 수익률로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중에 가장 저조했다. 해외채권형과 해외부동산형은 각각 3.51%와 3.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61	15,356	-2.71	9.77	8.43	-9.10
	글로벌주식	14	2,105	0.26	8.93	9.74	-1.74
	글로벌신흥국주식	15	3,635	-2.55	11.08	11.06	-9.78
	유럽주식	1	24	0.73	13.60	15.92	-5.03
	북미주식	1	46	3.14	9.96	17.32	9.77
	아시아태평양주식	3	356	-0.76	9.25	10.36	-4.70
	유럽신흥국주식	3	146	-1.25	13.66	14.86	-13.87
	아시아신흥국주식	6	5,479	-2.84	10.80	6.44	-9.35
	남미신흥국주식	3	229	-2.14	12.51	16.62	-6.90
	동남아주식	1	14	3.35	13.67	19.59	4.08
	일본주식	1	35	3.99	15.27	11.53	2.81
	중국주식	7	2,823	-5.53	6.61	6.28	-13.75
	러시아주식	1	14	-4.19	17.02	19.32	-15.45
	에너지섹터	2	170	-6.35	2.78	10.64	-14.35
	글로벌멀티섹터	3	280	1.71	11.24	11.59	-4.99
커머더티형		12	648	-2.71	2.61	3.36	-9.33
해외주식혼합형		76	42,264	-0.29	5.07	4.83	-4.55
해외채권혼합형		32	14,417	-0.28	2.52	3.09	-1.10
해외채권형		3	271	-0.03	3.51	3.47	2.65
해외부동산형		2	186	0.41	3.65	4.57	3.5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채권형 50억원)으로 운용된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 평균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상반기 증시 상승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 증가

변액보험 펀드 동향

1분기 변액보험 순자산액
4조 2,961억원 증가한
67조 3,282억원

1분기 동안 변액보험 펀드는 국내와 해외 모두 순자산액이 증가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조사한 결과, 1분기 동안 작년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순자산액이 4조 2,961억원 증가했다. 변액보험 국내펀드 순자산액이 3조 8,686억원 증가했고, 해외펀드는 4,275억원 증가했다.

국내주식시장 상승으로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순자산액은 분기동안 각각 1조 2,706억원과 1조 2,036억원이 증가해 가장 증가액이 컸다. 1월과 2월에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의 자금 증가액이 컸으나 3월들어 채권형 증가액이 국내 변액보험 펀드 증가액의 47%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아졌다.

채권형펀드의 순자산액은 분기동안 5,857억원이 증가했으며 채권혼합형펀드는 5,981억원이 증가했다.

해외 변액보험 펀드에서는 해외주식혼합형의 순자산액 증가가 2,5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주식형펀드가 1,2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월말 기준 변액보험 펀드중 국내외를 모두 포함해서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변액보험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이 혼합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황윤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4월02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12월말	3월말	증감	
주식형	122	98,298	111,004	12,706	
주식혼합형	141	225,372	237,408	12,036	
채권혼합형	153	159,694	165,675	5,981	
절대수익추구형	19	9,814	11,813	1,999	
채권형	140	65,747	71,603	5,857	
MMF	7	2,144	2,244	100	
기타	13	74	81	7	
국내 소계	595	561,142	599,828	38,686	
해외주식형	83	14,149	15,439	1,290	
해외주식혼합형	85	39,762	42,325	2,564	
해외채권혼합형	38	14,065	14,428	362	
해외채권형	11	400	424	24	
해외부동산형	2	190	186	-4	
커머더티형	14	613	652	39	
해외 소계	233	69,179	73,454	4,275	
전체	828	630,321	673,282	42,961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2년04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삼성 VUL&VA 삼성그룹주식형	1,481	테마주식	3.21	14.20	19.80	2.56
삼성 VUL종신 삼성그룹주식형	68	테마주식	3.02	13.73		
교보 VUL 프라임인덱스형	702	일반주식	2.17	12.39	18.33	4.70
교보 VUL종신 인덱스주식형	222	K200인덱스	1.42	10.45	15.43	
흥국 VUL 삼성그룹주식형	452	테마주식	1.02	11.42	15.31	-2.23
동양 VUL&VA 르네상스주식형	420	일반주식	0.17	7.41	8.00	-13.94
삼성 VUL종신 인덱스주식형	3,083	K200인덱스	0.05	10.59	14.16	-4.53
흥국 VA 인덱스 주식형	128	K200인덱스	-0.09	10.41	14.27	-4.04
삼성 VUL&VA K인덱스주식형	7,114	K200인덱스	-0.10	10.29	14.76	-3.36
ING VUL 코리아인덱스파생상품형	1,439	K200인덱스	-0.18	11.02	15.92	-4.34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PCA VUL&VA 인덱스성장형	699	공격적자산배분	1.08	8.44	12.21	-0.79
교보 VA 인덱스100혼합형	970	일반주식혼합	0.94	5.99	9.38	2.19
교보 VUL 파워인덱스형	1,334	일반주식혼합	0.91	8.01	12.21	-0.05
교보 VA 파워인덱스200혼합형	1,709	일반주식혼합	0.70	5.82	9.31	1.73
교보 VUL종신 인덱스혼합형	3,584	일반주식혼합	0.66	5.73	9.13	1.36
교보 VA 코리아인덱스혼합형	14,975	일반주식혼합	0.65	5.74	9.07	1.48
교보 VUL종신 파워인덱스100혼합형	1,627	일반주식혼합	0.62	5.75	9.15	1.16
교보 VUL 인덱스혼합형	5,364	일반주식혼합	0.59	5.77	9.08	1.30
교보 VA II 파워인덱스혼합형	10,398	일반주식혼합	0.55	5.80	9.22	1.54
대한 VUL종신&변액CI종신 인덱스혼합형 III	417	일반주식혼합	0.50	5.35	9.21	0.82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미래에셋 퇴직연금 국내성장증권투자형(채권혼합)적립금치	158	일반채권혼합	0.71	4.12	3.84	-0.41
교보 퇴직연금 인덱스혼합형	176	일반채권혼합	0.49	4.45	7.41	2.04
교보 VA II 인덱스혼합형	1,866	일반채권혼합	0.30	3.54	6.11	2.92
교보 VA 인덱스혼합형	1,057	일반채권혼합	0.26	3.39	5.85	2.21
KB VUL&VA 혼합형	130	일반채권혼합	0.24	4.07	6.03	-0.17
KDB VUL&VA 인덱스혼합형	296	일반채권혼합	0.15	4.04	6.68	2.48
미래에셋 변액종신 혼합형	73	일반채권혼합	0.09	1.90	2.58	-1.86
삼성 퇴직연금 인덱스혼합형_ClassH	62	일반채권혼합	-0.02	4.43	7.05	2.19
삼성 VA 인덱스혼합형	15,581	일반채권혼합	-0.03	3.37	5.52	2.09
흥국 VA 인덱스혼합형	244	일반채권혼합	-0.04	3.66	5.87	1.62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교보 VA II 단기채권형	271	초단기채권	0.26	0.75	1.71	3.21
삼성 VUL&VA 단기채권형	83	초단기채권	0.25	0.75	1.49	3.03
교보 VUL 단기채권형	97	초단기채권	0.24	0.70	1.40	2.82
ING VA 단기채권형	498	초단기채권	0.24	0.71	1.42	2.94
알리안츠 VUL 안정형	128	초단기채권	0.24	0.76	1.52	3.07
동양 변액종신 채권형	147	일반채권	0.23	0.75	2.19	4.29
동양 VUL 채권형	156	일반채권	0.23	0.82	2.32	4.64
ACE VUL&VA 단기채권형	202	초단기채권	0.23	0.72	1.45	2.82
신한 VA 단기채권형	202	초단기채권	0.22	0.66	1.29	2.59
ING VA 채권형	85	초단기채권	0.21	0.63	1.30	2.65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2년04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라이나 VUL 애그리비즈니스(AGRIC)	214	글로벌멀티섹터	2.22	12.64	12.22	-5.12
메트라이프 VUL 아시아주식형	279	아시아신흥국	1.28	11.77	13.79	-3.76
하나HSBC VUL 글로벌혼합형	51	글로벌	1.19	8.01	9.74	2.20
라이나 VUL 아시아50(ASIA5)	148	아시아신흥국	1.16	11.04	10.44	-4.50
메트라이프 VUL 글로벌주식형	144	글로벌	1.10	10.97	11.26	-1.48
알리안츠 VUL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83	글로벌	0.98	12.27	16.49	2.71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35	264	글로벌	0.77	8.68	9.47	-0.04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배당ETFs재간접형	83	글로벌	0.49	4.27	11.14	2.97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25	134	글로벌	0.31	7.09	7.82	-0.11
AIA VUL EMEA주식형	100	글로벌신흥국	0.20	9.66	13.71	-2.47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UL 글로벌인사이트자산배분형	3,323	로벌 공격적자산배	2.31	7.23	6.49	-0.41
미래에셋 변액CI종신 글로벌인사이트자산배분형	443	로벌 공격적자산배	2.22	6.72	6.04	-0.92
미래에셋 VUL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951	야태(ex J)	1.74	6.12	5.38	4.67
미래에셋 VA 글로벌인사이트혼합자산배분형	2,209	로벌 공격적자산배	1.67	5.52	5.17	-0.12
미래에셋 VA 동유럽혼합자산배분형	106	유럽신흥국	1.56	7.08	7.11	-4.90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컨슈머혼합자산배분형	171	야태(ex J)	1.39	4.80	4.21	4.41
삼성 VUL 미국혼합형	69	글로벌	1.12	5.32	10.03	4.88
교보 VUL 미국혼합형 II	91	글로벌	1.08	5.30	10.28	5.62
교보 VUL 아시아퍼시픽혼합형	105	야태(ex J)	0.73	6.59	7.61	1.39
교보 VA II 아시아퍼시픽혼합형	477	야태(ex J)	0.71	6.19	7.37	1.10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자산배분형	1,327	야태(ex J)	0.86	3.39	3.84	4.33
미래에셋 퇴직연금 글로벌APFocus증권투자형(채권혼합):	77	글로벌	0.27	4.56	4.97	2.53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251	글로벌	0.25	3.45	5.46	2.76
ING VA 선진국주식혼합형	64	글로벌	0.22	3.22	5.78	3.37
메트라이프 퇴직연금 글로벌혼합형	54	글로벌	0.21	5.36	7.82	2.01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218	야태(ex J)	0.13	3.20	4.05	1.28
미래에셋 VUL종신 주식안정자산배분형	69	글로벌	0.11	1.85	2.46	-1.88
KB VUL&VA 글로벌혼합형	71	글로벌	0.04	3.20	4.38	1.74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731	글로벌	-0.02	3.14	5.33	2.80
ING VA 아시아고배당성장혼합형	276	야태(ex J)	-0.05	2.91	3.86	1.59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